

노인층 경제상황, 현실·이상 괴리감 크다

2020 제주노인·베이비부머 실태조사 결과

희망소득·생활비 격차 3배... 경제생활 만족도 39.5% 32.2% “노후자금 준비” 대부분 적금·공적연금에 의존

제주지역 고령인구가 15%를 넘었고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가 올해부터 고령층에 진입한 가운데 향후 7~8년간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행복한 노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 마련은 매우 빈약한 것으로 파악되며 사회적 관심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마련이 요구된다.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가 9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2020 제주노인 및 베이비부머 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공동으로 도내 고령층(1000명)과 베이비부머(300명) 1300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건강, 경제 및 사회활동, 여가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박효민 서울시립대 교수는 ‘제주 고령자조사 개요와 제주 고령자의 경제상황’ 주제발표에서 “도내 베이비부머(5월 기준 8만6403명)라 불리는 예비고령층의 76.2%가 직업을 갖고 있으며, 80세 이상도 34.2%가 일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예비고령층의 경우 100만원대 수입이 33.4%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의 경우는 64.0%가 주된 직업에서 5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월평균 희망소득은 예비고령층 389만원, 80세 이상은 110만원이고 또한 적정 노후생활비는 예비고령층 212만원, 고령층 147만원 수준을 희망했다”며 “특히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고령층은 32.2%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노후자금

준비 여부에 대한 응답에서 연령대별로 예비고령층은 52.0%, 80세 이상은 21.3%에 그쳤고 준비방법은 일반 예적금과 공적연금이 주를 이뤘다.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39.5%에 불과했고, 21.0%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반응이다.

이어 윤혜진 배화여대 교수의 ‘제주노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참여’와 공선희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의 ‘노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제주고령친화도와 정책함의’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뒤따랐다.

윤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응답자 1249명의 49.8%는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상속할만한 재산이 없다’(27.8%), ‘재산 전부를 상속하겠다’(11.4%), ‘일부를 상속하겠다’(9.2%),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을 것이다’(1.8%) 순으로 조사됐다. 제주 노인이 여가시간을 보내는 장소로는 ‘집’이 65.7%로 가장 높았고 대부분 TV 시청이 많았다.

윤 교수는 “노년기의 새로운 생애 과제와 발달을 경험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연구 및 운영·지원하는 제주지역 내 에이징 웰 센터(center for aging well)나 민·관·학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선희 센터장은 “제주지역 노인들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연평균 1060만원(남 1621만원, 여 545만원)이고,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연평균 223만원에 불과하다”며 “노인의 절반(48.7%)이 통증·불편감을 느끼고 있으며 불안·우울에 대한 응답(29.0%)도 적지 않아 신체적·정신적 관리는 물론 신체활동·운동, 영양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의 67% 이상이 노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고 앞으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인식(63.4%)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전기차 특구·드론실증도시 구축 조명

2020 균형발전박람회 개막 제주 전시관 온라인 운영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난 2004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참여 박람회이다. 평균 1060만원(남 1621만원, 여 545만원)이고,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연평균 223만원에 불과하다”며 “노인의 절반(48.7%)이 통증·불편감을 느끼고 있으며 불안·우울에 대한 응답(29.0%)도 적지 않아 신체적·정신적 관리는 물론 신체활동·운동, 영양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의 67% 이상이 노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고 앞으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인식(63.4%)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차 기술혁명 시대, ICT 융합기반하에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전시관을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형 그린 뉴딜분야인 제주전기자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사업과 디지털 뉴딜분야인 제주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이 집중 조명된다.

제주도는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계획에 따라 전기차 연관사업을 소개하며 그린 뉴딜의 이미지를 굳히고, 디지털 뉴딜의 선도 지역으로서 미래 산업 신성장 동력의 핵심이 되는 드론산업의 확대와 서비스 향상을 중점적으로 홍보한다.

한편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선보이는 내용들은 박람회 홈페이지(<http://www.koreabalance.kr>)와 유튜브(균형발전TV)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도, 내년산 보리 1만t 수매... 30억 지원

40kg당 주정·맥주용 1만2000원 종자용 1만6000원 추가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산 보리 수매가 지원 계획을 확정해 보리 1만t을 계약 체결하고, 수매가 30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보리 수매가 지원 사업은 해마다 과잉 생산되고 있는 월동채소의 재배지를 기계화 농업이 가능한 보리로 전환해 고령화 등에 따른 농업인력 부족 해소 및 가격 안정화로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15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도는 내년 보리 수매 지원 사업은

보리 1만t(주류산업협회 7140t, 기타 2860t)을 생산 목표로 약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단가는 가마(40kg)당 주정용·맥주용 1만2000원, 종자용은 1만6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수매계약은 각 지역농협에서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농업인과 지역농협 간 재배계약 약정을 체결하고, 농협 수매에 참여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원한다. 제주도는 총괄 계획 및 예산 지원을 하고, 농협경제제주(주)제주지역본부 및 지역농협에서는 계약물량 전량 수매 및 유통처리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태윤기자

“바이든과 다방면 소통...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흔들림 없이 추진 의지”

문 대통령, 수석회의서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미국을 통합시키고, 성공하는 정부를 이끌어 나가길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둘도 없는 우방국이 자든 든든한 동맹국으로서 우리 정부는 미국 국민의 선택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함께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양국 국민의 단단한 유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트럼프 정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와 사이에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과도 다방면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차기 정부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을 교훈 삼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및 그린 뉴딜 정책과 일치하므로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며 “이렇게 유사한 가치 지향과 정책적 공통점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함께 열어가게 밑거름이 될 것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삼다수 국제식품안전표준 인증 획득

‘국민생수’ 제주삼다수가 국제식품안전표준의 최신 버전인 FSSC 22000을 성공적으로 전환, 국제 수준의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최근 제주삼다수와 관련해 국제식품안전표준 중 하나인 ‘FSSC22000 V5’ 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FSSC22000은 국제식품안전협회(IFSA)가 승인한 국제식품안전표준 가운데 하나로 식품공급사슬 전 단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과해야만 부여되는 식품안전 국제표준이다. 식품안전

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분야별 선형 요건프로그램과 제품 라벨링, 식품방어, 환경 모니터링 등의 9가지 추가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취득할 수 있다. 식품공급사슬 전반을 엄격히 평가받기 때문에 원부자재 입고부터 제품 출하의 전 공정에서의 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셈이다.

삼다수 공장은 2014년에 FSSC 22000을 취득했고 공급망 안정성 강화, 공장 작업 환경 개선 등 공사의 품질 고집과 꾸준한 경영 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최신 버전으로의 전환에 성공했다.

백금탁기자

도민께 호소합니다.

우리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여론조사를 반대합니다. 도민여론조사는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조장하게 됩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도민갈등해소특별위원회와 제주도가 제2공항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도민여론조사로 결정하려고 있습니다. 안전은 여론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포화상태인 제주공항은 혼잡하고 위험합니다. 확장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공항 건설은 도민의 염원이었습니다. 과거 도지사들은 모두 신공항 건설을 선거공약으로 삼았으며 제주도의회도 만장일치로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제주공항으로는 장래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제2공항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결정을 제주도과 제주도의회 제2공항 도민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도민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제2공항 건설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선흘 동물테마파크 사업과는 근본부터 다른 정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SOC 사업입니다.

도민에게 하늘 길은 대중교통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제2공항 건설이 해답입니다. 무리한 운항증대는 한 번의 실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 세월호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제2공항 건설은 최대의 국책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 효과로 제주경제를 살립니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미래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전은 여론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우리는 도민여론조사를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입니다.

2020년 11월 10일

제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